

##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미가 —

장성길\*

### 1. 미가 4:2

BHS<sup>5</sup>

וְהַלְכָה גּוֹיִם רַבִּים וְאָמְרוּ לִבּוּ וּנְגַעַלְהָ אֶל-הַרְיִיחָה וְאֶל-בָּיהִת  
אֶלְיָהִי שְׁעָקֵב וַיְהִי מִדְרְכֵי וְנַלְכָה בְּאֶרְחֹתֵיו פִּי מִצְיָן תַּצֵּא  
תָּהָת יְרֵבְרִיחָה מִירוּשָׁלָם:

『개역개정』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새번역』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공동개정』

모든 민족이 몰려와 말하리라. “어서, 야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을 뽑으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거기서 어떤 길을 가리켜 주시든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르자!”

\* University of Roehampto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gracesgjang@naver.com](mailto:gracesgjang@naver.com).

그렇다. 야훼의 가르침은 시온에서 나온다. 야훼의 말 쓰은 예루살렘에서 들려온다.

『새한글』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걸도록.”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1.1. 차이점 관찰

(1) 미가 4:2에서 2e행과 2f행을 번역함에 있어서 우리말 역본은 대부분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공동개정』의 경우 전반(2e)을 ‘어떤 길을 가리켜주시든’으로 번역했습니다.

(2) 마소라 본문은 4:2하반을 ‘(키)절’로 시작합니다. 키를 번역함에 있어서 『개역개정』은 ‘이는’으로 후반부를 시작했다면, 『새번역』은 특별한 표현을 넣지 않고 있으며, 『공동개정』은 ‘그렇다’라는 표현을 넣고 있으며, 『새한글』에서는 마지막 문장에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으로 ‘(키)절’의 의미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3) 4:2하반을 구성하는 두 개의 행(2g과 2h)의 경우, 첫 번째 문장은 yiqtol 동사를 쓰고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동사를 생략한 verbless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תּוֹרָה(토라)와 דְּבָרֵי־יְהֹוָה(데바르-아도나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이것을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하였고, 『공동개정』은 ‘야훼의 가르침’과 ‘야훼의 말씀’으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에서는 ‘가르침’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 1.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의 경우 4:2하반에 쓰인 תּוֹרָה(토라)와 דְּבָרֵי־יְהֹוָה(데바르-아도나이)를 번역함에 있어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CJB의 경우, ‘Torah’와 ‘the word of ADONAI’로 번역했고, ESV, NAS, NIV에서는 ‘the law’와 ‘the word of LORD’로 번역했으며, NAB와 TNK에서는 ‘instruction’으로 번역했으며, LB(1984)에서는 ‘Weisung(지침, 지시)’이라고 번역합니다.

###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첫 번째 이슈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우리말 역본은 BHS<sup>5</sup>에 쓰인 *w<sup>o</sup>yiqtol* 동사를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인지 양태(epistemic modality)’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כִּי**(키)절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공동개정』의 경우 ‘그렇다’라는 말로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다면, 『새한글』에서는 이유절로 번역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3) 선지서 본문에 쓰인 **תֹּרְהָה**(토라)라는 명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기한 대로 우리말 역본과 영역본 모두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 번역한 경우는 **תֹּרְהָה**(토라)의 속성을 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르침’, 또는 ‘교훈’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의 경우,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토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 역본에서는 『공동개정』과 『새한글』이 이러한 가설을 따라 번역한 경우이며, 영역본에서는 NAB와 TNK에서 ‘instruction’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LB(1984)의 경우에는 ‘지침’ 또는 ‘지시’란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 2. 미가 4:12

BHS<sup>5</sup>

וְהַמָּה לֹא יְדֻעַ מְחַשְּׁבֹת יְהוָה וְלֹא הַבִּנְהָרָא עַצְמָו פִּי קְבָצָם  
בְּעַמִּיר פָּרָנָה:

『개역개정』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새번역』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별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 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공동개정』

야훼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타작 마당에 곡식을 모아 두들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새한글』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셨다. 타작마당에 베어 둔 이삭처럼.

## 2.1. 차이점 관찰

(1) 미가 4:12상반은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반절은 **‘בְּ(키)’**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의 문장 구성(<sup>wc</sup>S-V(qatal)-O와 <sup>wc</sup>x-qatal-O)을 보면 평서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의 경우, 『공동개정』은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야훼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새번역』은 ‘나 주가 마음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라는 문장으로 설명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역개정』과 『새한글』은 3인칭 복수 형태의 평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2) 4:12하반의 **‘בְּ(키)’**절은 **‘בְּ-qatal-전명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의 경우, 『공동개정』은 상반에서처럼 평서문이 아닌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새번역』은 앞 절에서처럼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개역개정』은 **‘בְּ(키)’**절을 평서문으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BHS<sup>5</sup>의 문장 구성을 따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셨다, 타작마당에 베어 둔 이삭처럼.’으로 번역했습니다.

## 2.2. 외국어 역본 참조

단락 구분에 있어서 NIV, ESV, NRS 역본은 상반의 첫 행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었으며, 두 번째 행과 **‘בְּ(키)’**절을 또 하나의 큰 단락으로 묶고 있습니다. 반면에, CJB, NAS, LXE 등의 역본은 에트나흐타( )를 기점으로 상반의 두 행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았으며, 하반을 구성하는 **‘בְּ(키)’**절을 또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NIV	But they do not know the thoughts of the LORD; they do not understand his plan, that he has gathered them like sheaves to the threshing floor.
ESV	But they do not know the thoughts of the LORD; they do not understand his plan, that he has gathered them as sheaves to the threshing floor.
LXE	But they know not the thought of the Lord, and have not understood his counsel: for he has gathered them as

sheaves of the floor.

CJB      But they don't know the thoughts of *ADONAI*, they don't understand his plan; for he has gathered them like sheaves on the threshing-floor.

###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미가 4:12 첫 행에 쓰인 접속사 *ו*(바브)는 11절 담화와 대립되는 스토리 전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새번역』과 『새한글』에서처럼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화자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 본문에 ‘딸 시온을 침략하기 위해 모여든 다수의 민족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12절 본문에서 화자는 정작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데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려는데 담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정』처럼 의문문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역개정』과 『새한글』처럼 평서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2)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고 끊어 읽느냐는 본문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12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 역본에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NIV, ESV, NRS 역본과 유사하게 두 번째 행과 *כ*(키)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번역』은 *כ*(키)절을 하나의 독립적인 구문으로 보고 BHS<sup>5</sup>의 어순을 살려 번역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변사 *כ*(키)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로 읽기보다는 강조의 용법으로 해석하여 ‘참으로’라고 번역했으며, qatal 동사의 의미를 살려서 ‘그(여호와)가 그들을 모아들이셨다’라고 그 사실에 대한 확실성을 드러내는 문장으로 읽었으며, 마지막 문장(전치사구)은 ‘타작마당에 베어 둔 이삭처럼’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겨 독자들이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 3. 미가 5:10[9]

BHS<sup>5</sup>

וְהִיא בַּיּוֹם הַהוּא נָמִיהָה וְהַכְּרָתִי סְמִיךְ מִקְרָבָה וְהַאֲכָרְתִּי

מִרְכְּבָתִיךְ: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  
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새번역』	“ <u>나 주가 선언한다. 그 날이 오면</u> ,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 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 버리겠다.
『공동개정』	<u>그 날이 오면, — 야훼의 말씀이다.</u> 나는 너희가 타던 말을 모조리 죽이고 너희가 몰던 병거를 없애버리라.
『새한글』	(하나님) “ <u>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u> — 내가 너의 말들을 너의 가운데서부터 끊어 없애고, 너의 전투수레들을 망가뜨리겠다.

### 3.1. 차이점 관찰

미가 5:10은 히브리 성경(MT)에 표기되어 있는 다양한 담화 지시어들 (discourse markers)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며,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을 시작하는 복합시간담론 지시어 **יְהִי יְמִינָה יְמִינָה בַּיּוֹם-הַהוּא נָא**(베하야 바음-하후 네움-아도나이)를 번역함에 있어서 『공동개정』은 ‘그 날이 오면, — 야훼의 말씀이다.’로, 『새한글』은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로,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으로, 『새번역』은 ‘나 주가 선언한다. 그 날이 오면’으로 번역했습니다.

### 3.2. 외국어 역본 참조

NIV는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로, ESV는 ‘And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로, LXE는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saith the Lord,’로, CJB는 “‘When that day comes,’ says ADONAI,’로 NAS(1995)는 “‘It will be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로 번역했습니다.

### 3.3.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영역본의 경우, 대체로 시간 지시어를 먼저 언급하였고 이어서 ‘네움 아도나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와 ESV는 **בַּיּוֹם-הַהוּא נָא**(베하야 바음-하후)를 ‘그 날에’라고 번역했으며, BHS<sup>5</sup> 본문의 첫 단어 **יְהִי**(베하야)는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 영역본들은 마소라 본문의 의미를 살려 미래에 어떤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우리말 역본을 보면, 『개역개정』과 『새

번역』은 **נָאָמָר יְהֹוָה**(네움-아도나이)를 먼저 번역하였는데, **נָאָמָר יְהֹוָה**(네움-아도나이)에 대한 번역은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이 그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개정』과 『새한글』은 BHS<sup>5</sup>의 어순을 따라 번역했는데, 『공동개정』은 NIV와 ESV, LXE처럼 ‘그 날이 오면’이라는 구문으로 번역했으며, **נָאָמָר יְהֹוָה**(네움-아도나이)는 ‘야훼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새한글』은 **בְּיָמֵה בַּיּוֹם הַהוּא**(베하야 바음-하후)를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번역하여 BHS<sup>5</sup>의 표현을 잘 살려냈으며, **נָאָמָר יְהֹוָה**(네움-아도나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번역하여 그 출처가 여호와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미가 6:2

BHS<sup>5</sup>

**שְׁמַשׁ הַרִּים אֶתְרֵב הַהֵּן וְהַאֲתָנִים מִסְרֵי אָרֶץ כִּי רַב לִיהְוָה עַמּוֹ וְעַמּוֹ יִשְׂרָאֵל יִתְּנוּךְ:**

『개역개정』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새번역』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 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공동개정』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폐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새한글』

(예언자) 들어라, 산들아, 여호와께서 다투시는 말씀을, 땅의 변함없는 기초들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다투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실 것이다.

##### 4.1. 차이점 관찰

(1) 2절 첫 행의 경우 BHS<sup>5</sup>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하는데 반하여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로, 『새번역』은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 보아라.’로, 『공동개정』은 ‘야훼의 논고를 들으라.’로, 『새한글』은 ‘들어라, 산들아, 여호와께서 다투시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2) 2절 마지막 행에서는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로, 『새번역』은 ‘내가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로, 『공동개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로, 『새한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실 것이다.’로 번역했습니다.

####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미가 6:2 첫 행을 번역함에 있어서 BHS<sup>5</sup>의 어순을 따라 첫 문장을 명령형 동사(hear or listen)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6:2 마지막 행의 경우, TNK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he will a suit with Israel)’로, ESV는 ‘그가 이스라엘과 다툴 것이다(he will contend with Israel)’로, HCS는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논쟁할 것이다(he will argue it against Israel)’로, LXE는 ‘그가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he will plead with Israel)’로, NAS(1995)는 ‘이스라엘과 그가 다투 것이라(Even with Israel he will dispute)’로 번역했습니다.

#### 4.3. 차이점에 대한 평가

(1) 미가 6:2 첫 행은 명령형 동사 **שׁמַע**(쉼우)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장 어순이 의미 파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큰 차이점은 BHS<sup>5</sup>의 서두에 놓인 명령어 **שׁמַע**(쉼우)에 대한 번역에서 나타납니다. BHS<sup>5</sup>에서 담화의 초점은 들으라는 명령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히브리 어순이 가진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한글 어순대로 번역했습니다. 『새한글』은 우리말의 기본 어순(s-o-v)을 깨고 명령형 동사를 문두에 두어 ‘들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화자가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화자가 산들과 언덕들을 향하여 ‘들어라’라고 촉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석자는 먼저 미가 6장이 어떤 배경에서 쓰인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미가 6장 담화의 배경에 대해서 법정에서 벌어진 소송 장면을 떠올립니다.<sup>1)</sup> 그 근거로 본문 1절과 2절에서 ‘기소/고소/쟁변’이란 뜻의 히브리 명사 **בִּרְבּוֹת**(리브)를 세

1) B. Becking, *Mic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3), 204.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sup>2)</sup>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개역개정』은 ‘변론’으로, 『새번역』은 ‘고발’로, 『공동개정』은 ‘논고’로 번역했다면, 『새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 다투시는 말씀’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나 논고는 모호한 면이 있으며, 『새한글』에서는 산들과 땅의 변함없는 기초들이 들어야 할 말은 ‘여호와께서 다투시는 말씀’이라고 번역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돋고 있습니다. 이처럼 6장 본문은 매우 논쟁적 본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영역본에서 여호와께서 다투시는 말씀들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칭에 있어서 『개역개정』과 『공동개정』과 『새한글』은 3인칭 화법을 쓴 것에 반하여 『새번역』은 1인칭 화법을 써서 화자(야훼)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중과 뜻을 드러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HS<sup>5</sup>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1인칭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2절 마지막 행의 경우를 보면 ‘+전명구+yiqtol 동사’의 문장 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yiqtol 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번역상에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 『새번역』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BHS<sup>5</sup>에서 3인칭으로 기술된 문장을 1인칭 화법으로 바꾸어 ‘내가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공동개정』의 경우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호와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마치 목격하고 있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여호와가 … 변론할 것이라’로 번역하여 행위자(여호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려는 문장으로 읽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한글』에서도 본문에 쓰인 yiqtol 동사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실 것이다’고 번역하여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인지 양태(epistemic modality)’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 5. 미가 7:18

BHS<sup>5</sup>

מִי־אָל בְּמֹך נְשָׁא טָן וַיַּבְרֵר עַל־פְּשָׁע לְשָׁאָרִית נְחִלּוֹת  
לְאָדָחָזִיק לְעָד אֶפְ כִּיחְפֹּץ חָסֵד דָּנָא:

『개역개정』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2) 장성길, 『미가서 주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서울: 솔로몬, 2009), 132.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새번역』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 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공동개정』

하느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무리,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감아 주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일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찌 노여움을 끝내 품고 계시겠습니까?

『새한글』

(예언자) 어느 신이 주님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 못을 치워 버리십니다. 주님 자신의 뜻인 남은 사람들, 그들의 범죄를 넘어가 주십니다.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5.1. 차이점 관찰

(1) 미가 7:18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먼저 단락 구분에 있어서 BHS<sup>5</sup>는 크게 두 문단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전체를 한 시구로 읽어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새번역』과 『새한글』은 에트나흐타(、)를 기준으로 두 문단으로 구분하였고 『새한글』은 다시 마지막 ˘(키)절을 또 하나의 문장으로 읽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문장에서 주께서 그의 허물을 사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말 번역본에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역개정』은 ‘그 기업에 남은 자’로, 『공동개정』은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무리’로 번역했다면, 『새번역』은 ‘살아 남은 주님의 백성’으로 번역하였고, 『새한글』은 ‘주님 자신의 뜻인 남은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영어 역본들 가운데 ESV, LXE, NIV에서는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로 번역하고 있다면, NAS는 ‘the remnant of His possession?’로, TNK는 ‘the remnant of His own peopl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 내용 면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BHS<sup>5</sup>에서 상반에 쓰인 두 개의 분사, נִשְׁתַּת(노세)와 רָבַע(오베르)를 ESV에서는 ‘pardoning and passing over’로, NIV에서는 ‘pardons and forgives’로, NAS에서는 ‘pardons and passes over’로 번역하였다면, HCS에서는 ‘removing and passing over’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 영어 역본들에서는 담화 상에 언급되고 있는 대상을 가리켜 큰 차이 없이 ‘the remnant of His possession(or inheritance)’로 번역하였는데 반하여, 우리말 번역의 경우 다양하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의 ‘살아 남은 주님의 백성’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으며, 『공동개정』의 ‘남에게 넘겨줄 수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무리’라는 표현은 설명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고, 『새한글』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뜻’이며 동시에 ‘남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 선지자가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경우, ESV와 NIV, NAS와 유사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사유하시며, 용서하심’에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개정』의 경우, ‘용서하시고, 눈감아주시는 분’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새한글』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잘못을 ‘치워 버리시며(נִשְׁתַּת[노세]), 넘어가 주시는 분(רָבַע[오베르])’이라고 분명하게 그 의미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 <주제어>(Keywords)

미가 4:2, 미가 4:12, 미가 5:10, 미가 6:2, 담화 지시어 번역, 히브리어 키 번역.

Micah 4:2, Micah 4:12, Micah 5:10[9], Micah 6:2, Discourse Markers Translation, Hebrew Particle *Ki*.